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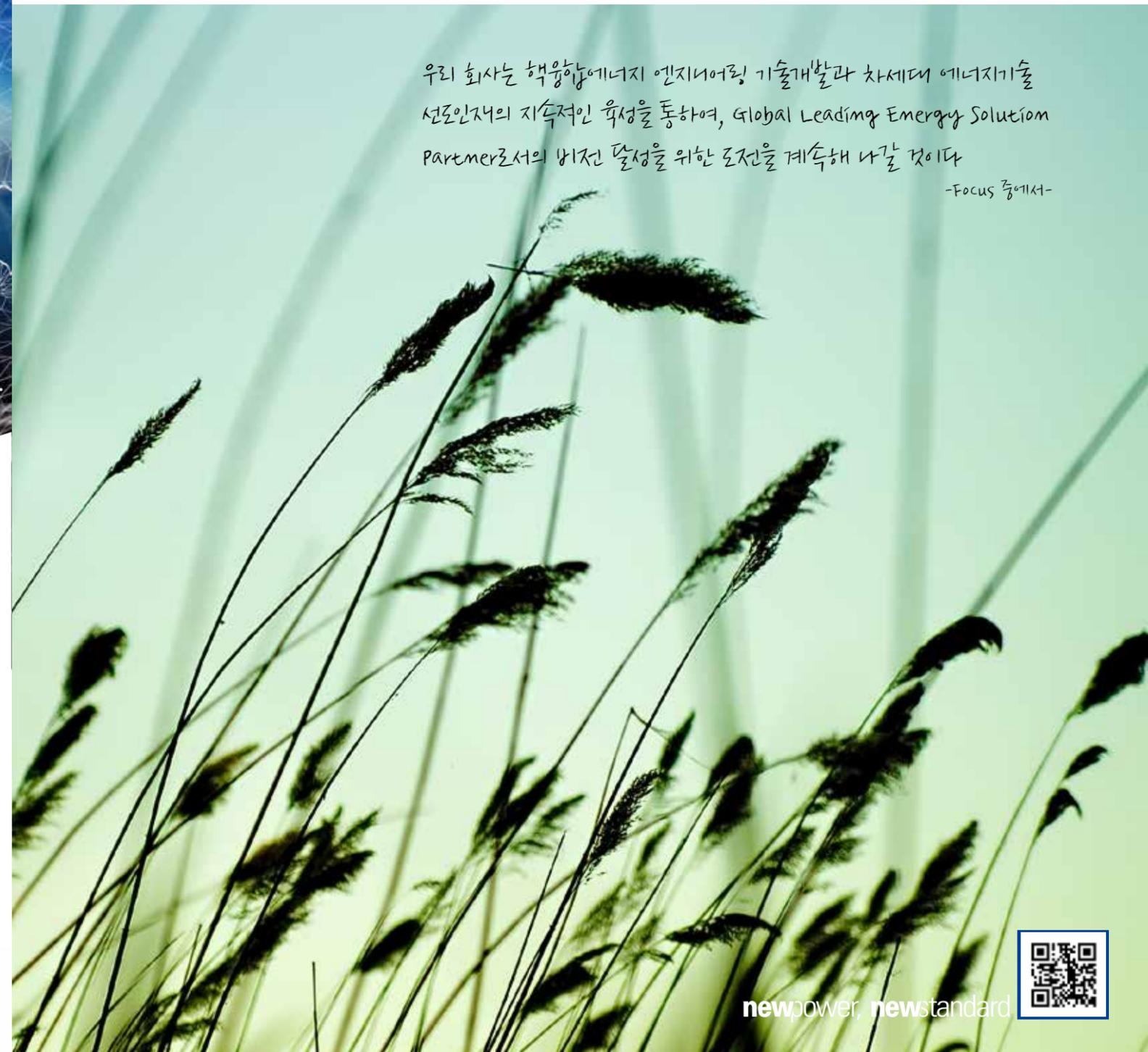
Family

201911

우리 회사는 핵융합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술개발과 차세대 에너지기술 선진인사의 지속적인 유성을 통하여,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로서의 비전 달성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Focus 중에서-

사람을 향한 기술! 행복한 에너지기술 한국전력기술

모든 것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의 점은, 우리의 의지이자 신념이고 인류를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점이 모여 선을 만들고, 선들이 모여 면을 그리고, 면을 채운 인고의 시간이 모여 우리만의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금까지의 도전이 늘 새로운 미래를 열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큰 내일을 그려가겠습니다. 행복한 에너지기술을 향한 도전. 사람을 향한 기술. 한국전력기술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일자리 창출 무역부 장관과 기술협력방안 논의

회사는 10월 14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사절단과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을 포함한 적극적인 상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이배수 사장과 경제개발·일자리 창출 무역부의 빅 페델리(Vic Fedeli)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빅 페델리 장관은 회의에 앞서 우리 회사의 캐나다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배수 사장은 우리 회사의 설계 경험과 기술력을 소개하였으며, 캐나다 업체들과의 공동 원전 사업개발, 중소형 원자로(SMR : Small Modular Reactor), 해상풍력기술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회사는 지속적인 캐나다 원전시장 진출을 위하여 온타리오주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핵융합 엔지니어링 인재양성 프로젝트 스타트!

우리 회사는 9월 23일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관리 시행사인 프랑스 MOMENTUM사와 2026년까지 연 최대 5명의 신입 초급기술자를 ITER 건설관리 현장에 파견하는 계약을 수주하였다.

회사의 이번 계약은 에너지전환시대에 미래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선도해 나갈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회사 장기 경영전략에 따른 것으로, 파견된 신입 직원들에게는 국제 대형 프로젝트 건설관리 사업에 실제 참여하므로 현장 실무를 경험하는 교육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회사는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핵융합에너지 엔지니어링기술 개발을 위하여 국가핵융합연구소와 긴밀히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300억 원에 달하는 ITER 사업 수주실적을 달성하였다.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은 "이번 프로젝트 계약 체결은 주력 사업인 엔지니어링 비즈니스에서 회사가 지향하는 고부가가치의 건설 및 사업관리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며, 또한 직원에게는 ITER 사업 참여와 체험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 회사는 핵융합에너지뿐만 아니라 차세대 에너지기술 선도인재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하여, Global Leading Energy Solution Partner 비전 달성을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9년도 SAREX 사용자그룹 회의 개최

SAREX 사용자그룹 회의가 9월 19일과 20일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우리 회사가 개발한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SA :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소프트웨어인 SAREX(Safety and Reliability Evaluation eXpert) 구매 기관들이 신규 기능, 소프트웨어 개발 방향, PSA 기술 현안 등을 토론힬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7년부터 올해 3번째로 개최된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회원사인 미래와 도전, 액트, 뉴클리어 엔지니어링과 교육기관인 세종대학교 등 총 7개 기관 3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18년 9월 이후 1년간 배포된 SAREX 소프트웨어 신규 기능 설명, 외부 전문가 강연, 개발 현황 및 추후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를 비롯하여 사용자 요구 사항 청취, SAREX 활용 방안 및 PSA 기술 현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현재 수행 중인 PSA 관련 사업의 규제 요건 만족을 위한 SAREX 활용 방안과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회사는 지속적인 SAREX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와 사용자그룹 회의 개최를 통하여 국내외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가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실시

- 임직원 및 가족 200여명 김천 평화시장
찾아 장보기 및 문화축제 행사 참여

회사는 10월 17일 김천시 평화동에서 열린 '제17회 평화시장 문화축제' 행사에 참여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통시장 축제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캠페인에는 임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및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하여 전통시장 장보기, 전통시장 홍보 판촉물 배부, 문화축제 개막식 관람 등으로 진행되었다.

임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은 "우리 임직원의 작은 실천이 지역의 소비 침체 현상 해소에 보탬이 되기 바란다"며,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전기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지난 2015년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전통시장 장보기 장려 운동, 지역 특산물 구매 장터 운영, 지역 소상공인 제조물품 구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 참여로 전통시장 살리기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상생에 힘쓸 계획이다.





2019년 제2차 감사자문위원회 개최



2019년 제2차 감사자문위원회가 10월 7일 열렸다. 행사에는 정일순 상임감사를 비롯해 감사자문위원단 이시백 전 감사원 과장, 박종훈 변호사,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 정성훈 회계사, 정기태 회계사와 감사실 직원들이 참석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감사업무 역량의 제고와 청렴윤리 정착을 위한 자문을 위한 기구로서 2017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감사자문위원회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 등 회계분야 감사 강화에 따라 회계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감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정일순 상임감사 취임 후 감사업무 주요 추진 현황 보고에 이어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실시심사 결과, 기재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 대한 자문위원단과 감사인 사이에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자문위원들은 “2018년 평가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감사업무의 역량 강화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일순 상임감사는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의견은 물론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감사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당부하였다.



한기 C.S.I(청렴·상생·인권) 파트너 발대식 개최



회사는 7월 31일 인권존중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한기 C.S.I(청렴·상생·인권) 파트너 발대식'을 가졌다.

한기 C.S.I 프로그램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청렴·상생·인권 교육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C.S.I 파트너는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청렴·상생·인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성장실 윤리문화팀, 감사실 청렴기획팀, 본부(단) 윤리경영 지킴이로 구성된 C.S.I 파트너는 발대식에서 회사와 협력사의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되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회사는 8월 8일 사옥관리 용역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첫 번째 한기 C.S.I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협력사의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협력사를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사하는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6학년 아들이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엄마 아빠 손에 차례로 쥐어 줍니다.
피로 회복제로 알려진 박카스였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런 머리가 돌아갔는지
감동한 아빠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퇴근길 비좁은 지하철에
연로하신 할머니가 들어오십니다.
앉아 있던 학생이 자리를 양보합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한참 동안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학생 손에 뭔가를 살며시 쥐어 주십니다.
작은 알사탕 한 개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경입니다.

호주머니란 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술사 같기도 합니다.
알사탕이 나오고 피로 회복제가 나오고
첫사랑 시절엔 달콤한 초콜릿이 나오고
때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수건도 나오니까요.

당신의 호주머니 속에는
지갑 말고 무엇이 들어 있는지요.

2019년 멘토링(Mentoring) 프로그램 - 1조

주목하던 낯들을 떠올리며...



부서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이라고 들었다. 회사 시스템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모르는 것이 많으니 단순히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 멘토를 선정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회사에서 시간과 예산을 지원해 주며 멘토와 멘티가 친밀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경해진 틀이 없었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다. 부서 선배와도 친해지고 회사와 김천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 일정을 조정하기로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천에서 배구 경기를 관람하다

배구 경기는 우리 조의 첫 멘토링 활동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활동이었다. 우리 조는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의 관심사로 평소 운동 이야기를 많이 하며 친목을 다졌다. 그러던 중, 김천 경기장에서 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의 경기 관람표가 생겨 경기를 보러 갔다. 김천에 이렇게 큰 배구 경기장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평일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경기를 보러 와서 놀랐다. 들어갔을 때는 이미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었고, 배구 경기 관람이 처음이었기에 다소 어색하게 자리에 앉아 응원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응원단장의 구령에 맞춰 함께 응원을 하다 보니 배구 골수팬이었던 것 마냥 신나게 응원했다. 생각보다 배구 경기 관람이 재미있었고, 함께 도로공사팀을 응원하니 우리가 같은 팀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친밀감이 높아질 수 있었다. 더욱이, 이 경기는 도로공사팀이 승리하여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



주왕산 국립공원

신입사원 단체 멘토링 활동으로 경북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에 다녀왔다. 주왕산은 국내 3대 바위산 중 하나로 초입부터 보이는 장엄한 7개의 봉우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트레킹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중간에 여러 포토존에서 같이 사진도 찍으며 소속감과 동료애를 많이 쌓을 수 있었다. 또한 해설사님께서 코스 길 곳곳마다 가지고 있는 특유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장소에서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을 알려주셔서 함께 걸었기에 더 재미있게 트레킹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트레킹이었지만, 회사를 벗어나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다음 기수가 이와 같은 단체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면 다른 장소도 좋겠지만 주왕산에서 트레킹을 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장소도 장소지만 트레킹 후 먹었던 닭백숙이 일품이다.



김천 맛집 기행

우리는 3개월이라는 멘토링 기간 동안 10곳이 넘는 맛집을 탐방했다. 처음 김천에 왔을 때 이곳에는 음식점이 거의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곳곳에 음식점이 많이 있었고, 맛집 또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멘토링 활동을 기회로 수많은 맛집을 방문하였다. 순대국밥, 삼겹살, 갈비, 참치, 콩나물국밥, 돌솥밥, 칼국수, 급창, 한정식 등등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데,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맛집은 어모면에 위치한 '유정식당'이었다. 우선 위치가 혁신도시에서 차로 15분 정도 가야 나오는 곳으로 다소 외지에 있어 이런 곳에 음식점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었다. 그런데 점차 식당에 가까워지니 주변에 다른 음식점들도 있었고, 식당 주차장은 거의 꽉 차 있었다. 음식점에 들어서니 야외석까지 꽉 차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다행히 예약을 해둔 상태라 바로 주문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유정식당의 메인 메뉴는 순대국밥으로 김천에 와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함께 김천 곳곳을 방문하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역시 배가 차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



스터디 발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친목활동을 통해 부서에 적응하고 동료애를 쌓는 것과 함께 직무관련 스터디를 통해 업무의 기본 지식을 다지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이에 3개월간 주 1회 멘토인 김정현 과장님께 복수 계통, P&ID, PMC, Pump, 열 교환기 등 업무지식과 관련한 기본 교육을 받았었다. 마지막 달에는 담당하게 된 계통을 그간 배웠던 지식들을 활용하여 부서에서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반적인 내용은 물론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갈 수 있어 좋았고 과장님께서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며 그간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고 담당 계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좋았다. 또한 3개월이라는 멘토링 기간 동안 꾸준히 스터디를 해왔고 발표를 통해 좋게 끝을 맺으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치며

입사 후 조금은 어색했던 우리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친해지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되었다. 누가 멘토링 프로그램이 어땠냐고 물어 본다면 매년 했으면 좋겠고 회사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추억이라고 말할 것이다. 참고로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입사원이라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본인과 동료 멘티의 활동 의지에 따라 이 프로그램은 소중한 추억이 되거나 보고서를 써야 하는 귀찮은 활동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될 후배들에게 이왕 해야만 하는 일에 즐기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당부해 주고 싶다. **ESC**

여유가 머무는 곳, 안동

이미 작년에 방문한 안동이지만,
2019년의 절반도 남지 않은, 곧 방문한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안동은 여전히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사무실의 시끄러운 전화 소리, 타자 소리, 회의하는 소리를 피해 잠시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 건물을 짓는 공사장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시끄러운 일상을 피해 김천에서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면, 고요하고 한적한 안동 하회 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하회 마을에서 있는 것만으로 마을과 하나가 되어 함께 숨 쉬며 여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1월의 햇살이 아직 따뜻한 듯, 조금은 쌀쌀한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날씨는 안동 하회 마을을 거닐기에 적당한 날씨였다. 안동 하회 마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것만 같은 모양새로 자리 잡고 있었다. 아직까지 하회 마을을 지키고 계신 주민들도 마치 무엇이 변했냐는 듯이 하회 마을과 하나가 되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안동 하회 마을은 풍산 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다.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10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한 시대의 독특한 문화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며 잘 보존되고 있다. 특히 자연과 잘 조화되어 살아온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을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 생활공간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11월의 안동 하회 마을의 곳곳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찾을 수 있었다. 마을을 따라 거닐다 보면, 그다지 높지 않은 담장에서 옛사람들의 이웃 간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 높지는 않지



하회마을 담장



전통가옥



감나무



산수유



모과나무

만, 낮지도 않은, 그 적당한 높이에서 옛사람들은 예의를 지키며 살았을 것이다. 마을의 담장 높이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적절한 경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과하지 않은 적당함은 어느 시대에서든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담장 너머에 위치한 전통가옥들은 저마다 비슷한 듯 다른 형태로 저마다의 개성을 띄고 있었다. 마치 비슷한 듯 다른 우리들의 개성처럼, 전통가옥들은 직선과 곡선의 미가 잘 어우러져 하나의 가옥을 구성하고 있었다. 가옥을 지탱하는 직선은 강직함을, 처마를 구성하는 곡선은 유연한 모습을 띄며 아름다운 한국적인 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서로서로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띄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슷한 듯 다른 전통가옥과 우리의 삶이 비슷하진 않은가 느끼게 되었다.

집집마다 곡선으로 이루어진 처마 끝은 뒷산의 능선과 하늘의 구름과 11월의 바람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서양의 하늘을 찌르는 첨탑과는 다른 조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가옥들마다 개성이 어느 하나 모나지 않고 능선과 구름과 바람과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 우리 조상들의 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모습이 마치 개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았다.

안동 하회 마을의 길을 거닐다 보면 바스락거리는 흙길을 느낄 수 있다. 흙길을 거닐면서, 요즘 도시에서 잘 느껴볼 수 없는 대지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나간 사람의 발자취에 따라, 밟는 자리자리마다 모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미묘한 차이를 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밟은 모래알은 지금에 있지만,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고, 미래에도 어느 공간에서 소리를 내고 있을 것이다. 바스락거리는 모래알처럼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되새기며, 잘못된 소





전통가옥



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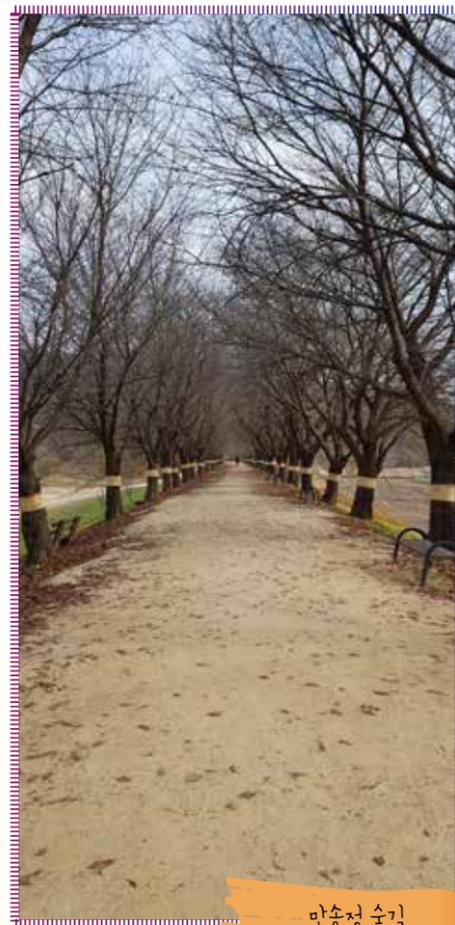
배추밭



리를 바로잡아 보고, 앞으로의 소리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하지만 예측된 소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틀린 소리는 아닐 것이다. 그 또한 어느 공간에서 마찰을 일으키며 지나가는 발자국의 발자취를 남길 것이다.

바스락거리는 흙길을 따라, 마을을 감싸는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열매들과 김장철을 알리는 듯 속이 팍 찬 배추밭이 그날의 온도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었다. 열매와 배추는 다가오는 겨울과 봄 그리고 여름에는 다른 모습으로 마을을 감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늘 그래 왔듯이 마을을 감싸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바뀌지 않는 뜨거운 마음들처럼 그렇게 마을을 감싸고 있을 것이다. 그 계절, 그 온도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하나 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의 열매이고 배추이지 않을까 싶다.

배추밭을 돌아가면, 만송정 숲길을 걸을 수 있다.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이라고 예고라도 하는 듯 바스락거리는 흙길의 양 가로수는 앙상하고 곧은 가지들이 저마다의 방향 향해 달리하고 있다. 하나, 둘 남은 이파리를 보내지만, 머지않아 먼저 떠난 나뭇잎들의 품으로 바스락거리며 하나가 된다. 풍성했던 나무가 떠나보낸 흙길에 쌓인 낙엽들로, 하회 마을의 길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낙엽들은 다시 나무의 영양분이 되어 새로운 나뭇잎을 피워낼 것이다. 과거의 우리가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듯이, 현재의 우리로부터 미래의 우리가 피어날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과거에서 왔듯이, 미래의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서 비롯될 것이다. 잘못된 우리의 모습은 바로잡고, 새로운 내일을 피워낸다면, 다가올 봄엔 더 파릇파릇한 나뭇잎이 피어나지 않을까 싶다.



만송정 숲길



곧은 숲길을 따라 흐르는 낙동강 너머 웅장한 모습으로 부용대가 자리잡고 있다. 깎아지른 기암절벽과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강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대자연이 그린 한 폭의 그림을 볼 수 있다. 부용대 정상에서 바라본 하회 마을은 신비감을 자아낸다고 한다. 또한 음력 7월 초에는 부용대 주변으로 시화, 뱃놀이, 줄불, 연화, 낙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선유줄불놀이가 열린다고 한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놀이를 통해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선조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우리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부단하게 살아가고 있다. 가끔은 일에 치여, 사람에 치여 꼭 보아야 하는 것을 놓치지 않을까, 혹은 그러한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가을과 겨울 사이의 안동 하회 마을을 다시 보기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2019년의 시간은 나와 같이 가는 듯 조금 더 빠른 걸음 중인 것 같다. 다시 그 계절이 온다면, 그뻘 조금 더 따뜻한 하회 마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담장도, 가옥도, 흙길도, 모래도 저마다의 여유를 품고 있는 하회 마을에서 잠시 바쁜 일상은 접어두고 내 마음속 여유를 찾아보길 바란다. **E&C**



갈대밭



부용대

육아일기

올해는 결혼한 지 만 5년이 되는 해이다. 결혼 5주년을 기념해 가족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불현듯이 아내만의 시간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처음 아내에게 혼자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오라는 말을 꺼내기 무섭게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아내가 막상 간다고 하니 겁도 났지만 아이들과의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되었다. 아들 둘, 큰아들 서진이는 5살이고 어린이집도 가니 큰 부담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둘째는 아직 겁 없는 20개월 남짓이라 한 눈 팔았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다.

떠나기 며칠 전부터 아내의 기분은 결혼 생활 이후로 보기 드물게 활기가 넘쳤다. 아내는 혼자 갈 여행지로 라스베이거스로 정했다. 그곳은 늘 아내가 보고 싶었던 태양의 서커스 공연과 그랜드캐니언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여행 스케줄을 짜고 그곳에서 입을 옷을 하나씩 싸는 아내의 모습을 보곤 결정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가기 전 나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냉장고, 문, 가방 등에 포스트잇을 남기며 일주일 간 내가 해야 할 미션을 붙여갔다. 미션들은 약 먹이기, 병원 가기, 큰 아이의 요일별 어린이집 복장과 수업들, 둘째 문화센터 보내기 위한 약도와 시간 등 아빠가 해야 할 것들이었다.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 날이 되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KTX를 타기 위해 배웅의 시간, 생각보다 이별의 순간은 차분했다. 애들이 엄마와 떨어지는 게 낯설어 울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잠시였다. 첫째는 표정이 조금 좋지 않았지만, 둘째는 엄마가 떠나는 것보다 기차에 관심을 더 보였다. 아내를 보내고 난 뒤 난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다. 마트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각자의 손에 하나씩 쥐여 주고 일주일 간의 먹을거리를 채워 갔다.

매 끼니의 메뉴를 정하는 것 만큼 힘든 일이 없었다. 우선 한번 끓이면 일주일일은 거뜬히 먹을 만한 자장밥과 미역국을 만들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먹었지만 이틀째가 되니 내가 만든 음식이지만 하루 종일 같은 음식만 먹고 있으니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다. 어느새 배달 전단지를 보며 아이들과 같이 음식을 고르고 있었다. 평소 외식 좀 자주 하자던 아내의 핀잔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음식 하는 것 만큼이나 둘째 아들 서진이의 먹고 난 뒤치러가 더 고됐다. 서원이가 한번 식사를 시작하면 옷은 음식으로 물들었고 바닥은 밥풀과 반찬으로 도배가 되었다. 그렇다고 먹여주면 그 자그마한 혀로 숟가락을 밀어내고는 자신이 떠먹는다고 숟가락을 가리키며 달라고 떼쓴다. 주관도 누구 닮았는지 뚜렷해서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는다. 큰 애는 당황하는 내 모습이 재미있었던지 옆에서 마냥 웃기만 한다. 식사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아들의 세상이 된다. 두발로 걸어 다닌 지 이제 몇 달 안 된 놈이 벌써부터 내 손잡고 이곳저곳 데리고 다닌다. 손이라도 한번 떼면 철퍼덕 주저앉아서 우는 건 각오해야 했다.

하루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녹색미래 과학관에 갔다. 가는 내내 아이들은 신나 있었다. 아직 아이들은 미래나 환경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는 키즈카페 같은 작은 놀이시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오랜만에 와서 비슷한 또래와 어울려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았다. 물론 둘째 아이는 계속 지켜봐 주었지만 그때야 조금 여유가 있었다. 육아가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루가 또 흘러갔다. 아내는 여행지에 도착한 후 틈틈이 영상통화를 했다. 아이들을 두고 가서 마냥 신나게 놀기 미안했는지 주고 간 미션은 잘 했는지 확인한다. 내심 아내가 돌아왔을 때 엉망인 집안 모습을 보면 걱정할 모습이 떠올랐다. 마지막 날은 집 안 청소와 아이들도 목욕시키고 아빠 혼자서도 잘 지내는 티를 내고 싶었다.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아내가 돌아왔다. 아내는 집안 구석구석을 보며, “내가 없으면 집이 이 모양이네.” 하면서 마치 내준 숙제를 검사하듯 집안 구석구석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나름 완벽한 모습을 꿈꿨지만 어느덧 자칭 주부 9단이라는 아내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다.

평소에도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편이었지만 일주일 내내 보면서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갈 수도 있었지만 아내 혼자 다녀온 게 더 잘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집안일을 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인 아내가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다.

아내에게 지나가는 말로 “다음에 또 혼자 갈래?” 물어보니, 아내는 나만 괜찮다면 또 갈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E&C



C ommunication

인류는 수천 년을 자연 속에서 살아왔다.
육체적 건강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면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이 필요하다.
좀 더 비용을 투자하면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
시간과 비용을 더 투자하며 여행을 가는 것.

바쁨에 매몰되어 있던 일상을 떨치고
캐나다 토론토행 비행기를 탔다.
자리는 만석이었고 선반의 짐도 가득찼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덜컹거린다.
옆 좌석의 일행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썰렁한 개그를 쏟아낸다.
“이 동네는 아직도 비포장도로인가 봐”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만약'이라는 단어가
수만 개의 날개를 달고 머릿속을 휘젓고 다닌다.
흔들림 한 번에 한 달치 수명이 달아나는 것 같다.
만약에 지금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작 집에 있는 가족을 위해
몇 마디 유언을 남기는 일조차 불가능하다.

삶의 여정에 있었던 무수한 만약들,
과거와 결합하면 후회에 가닿았고
미래와 연결하면 희망으로 귀결이 된다.
구름은 잠시 머물다 가는 것,
창문 밖으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녹아내릴 일도 없이
태양 가까이에 내가 있었다.

비행기는 장장 13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불행한 만약이 없이 토론토 공항에 안착했다.

예(禮)가 스며있는 전통 공간

안동의 고택 기행



01 안동시내 별바른 터에 너르게 자리한 탐동 파 종택 02 담장 너머로 보이는 퇴계 종택의 건물들 03 종택 옆 문간으로 보여지는 군자정 04 창고택에 가을이 물들고 있다



01



04

가을이 물드는 고택. 장독 위에 떨어진 낙엽과 담 너머 숲의 운치가 정겹다. 이즈음이면 어디든 붉게 지고 물드는 풍경이지만 유독 정겹게 느껴지는 것은 옛 시간의 향수가 얹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해가족 시대가 대세가 되어버린 이즈음과는 달리, 예전의 대가족 시대에는 가문의 왕래가 빈번했다. 집안의 행사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모여 의논하고 함께 희비를 나누었다. 종갓집이라 불리는 종택이 주된 모임 장소였다. 문중 사람들이 모이는 종택의 예법은 늘 근엄했고, 예법이 엄정할수록 가문의 격이 높았다. 오래된 명문가의 종택에서 고풍스러움과 함께 격식이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전통과 예법에서 기인할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격의 가치도 변하고 있다. 가치가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禮)가 무너지는 현실이 안타까운 이즈음이다. 고택을 찾아 우리네 주거공간이었던 한옥의 아름다움과 오래된 전통을 만나본다.



05



06



07



08

05 길게 이어지는 마루와 난간이 고택의 운치를 더한다 06 농암종택의 솟을대문 07 퇴계 종택의 안채 08 유가의 고택답게 사당이 뒤쪽에 마련되어 있다 09 탐동파 종택 앞에 자리한 신세동 칠층전탑

고성 이씨 학동과 종택

안동시 법흥동, 낙동강변 철길 뒤편으로 세 곳의 문화유적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국보 16호로 지정된 신세동 칠층 전탑, 보물 182호로 지정된 임청각정침 근자정, 그리고 고성 이씨 학동과 종택이다. 원래 이곳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법흥사라는 큰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 불교 탄압 정책으로 법흥사는 약 3~4칸 규모의 작은 절집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조선 숙종 11년(1685)에 좌승지 이후식에 의해 지금의 종택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집을 지을 당시 신기한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당시 승지에서 물러나 안동으로 내려온 이후식 공이 이곳에 집터를 잡고 안채를 짓기 시작했다. 기존에 있던 절을 허물고 불상들을 낙동강변에 버렸는데, 다음날이 되면 버려졌던 불상들이 다시 제자리에 와있고 또 버리면 다시 와있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어느 날 꿈에 부처님이 현몽하여 말하기를 “이 집은 나의 집터인데 왜 나를 몰아내고 네가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자손들을 잡아가리라” 하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 결국, 집 짓는 일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총명한 손자가 조부의 용기를 복돋웠다고 한다. 손자의 정성 어린 위로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꿈에 다시 부처님이 현몽하여 “손자의 생기와 효심을 여여뼈 여겨 집을 짓도록 허락하니 추후 부처님을 잘 받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현재 탐동파 종택에는 안채, 영모당, 정우재, 북정, 사당 등이 남아 있으며 세 칸짜리 대문채(행랑채)가 중요민속자료 185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성 이씨가 안동에 정착한지 22대, 500여 년의 세월 동안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간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안동 양반사회에서 도산서원 전교와 함께 최고의 명예직으로 여겼던 안동 유향좌수(留鄕座首)가 이 문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퇴계종택

안동시 도산면에 자리한 퇴계종택은 퇴계 이황의 손자인 이안도가 지었다. 말년에 안동으로 내려온 퇴계는 고향 시냇가에 한서암이라는 작은 집을 짓고 후학들과 함께 학문에 몰두하다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안도는 할아버지의 자취가 배어있는 한서암 동남쪽에 후손들이 살 집을 마련했다. 세월이 흘러 퇴계의 10대손 이휘녕이 원래 집 건너편에 또 한 채의 집을 세웠다. 그러나 퇴계종택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수난을 겪게 된다. 명성황후가 시해당하고 단발령이 내려진 가운데 1895년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다. 당시 안동에서도 의병이 봉기했는데 이때 의병장을 맡은 이가 퇴계의 11대손 이만도였다. 이렇게 시작한 안동의 항일운동이 끊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자 일제는 1907년, 안동의 정신적 지주였던 퇴계종택을 불 질러 버렸다. 지금의 퇴계종택은 13대손인 이충호가 1929년 인근 다른 집안의 종택을 사들여 옮겨 세운 것이다.

숙종 때 학자 권두경이 퇴계를 남달리 흠모해 세운 추월한수정(秋月寒水亭)도 재건했다. 야산을 등지고 비교적 평탄한 지형에 동남향으로 앉은 퇴계종택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5칸 솟을대문과 □자형 정침(正寢 : 주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집 또는 방)이 있는 영역, 동쪽에 약간 뒤로 치져서 같은 규모와 양식의 5칸 솟을대문과 추월한수정으로 이루어진 영역, 그 뒤쪽에 접한 솟을삼문과 사당이 있는 영역 등 총 34칸에 이른다. 현재 퇴계종택에는 후손 삼대가 함께 살고 있다. 종손 3대는 가학(家學)도 있고 있다. 15대 손인 이동은 옹은 일제시대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왜놈 교육은 받지 말라”는 문중의 엄명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성리학을 공부했다. 퇴계의 존재가 그렇듯 안동의



09



10

수많은 명문가 중에서도 퇴계고택이 지니는 의미는 각별하다. 2001년 퇴계 탄신 500년을 맞아 안동에서 세계유교문화축제가 열렸을 때는 2000여 명이 모여 제사를 올렸다.

농암종택

낙동강이 안동으로 흘러드는 청량산 자락 뒤편, 기묘한 단애의 산과 휘도는 강이 어우러진 풍광 좋은 마을 분강촌에 농암종택이 자리하고 있다. 농암종택은 '농암가' '현거어부가' 등으로 영남 시가문학을 선도한 농암 이현보가 태어나고 성장한 집이다. 직계 자손들이 650여년에 걸쳐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집을 처음 지은 사람은 농암의 고조부 이변으로 1370년 무렵에 지어졌다. 농암이 불천위(不遷位)로 모셔졌기에 농암종택으로 불리운다. 종택은 이천여 평의 대지 위에 사당, 안채, 사랑채, 별채, 문간채로 구성된 본채와 궁구당, 명농당 등의 별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궁구당은 1350년 이현이 지은 건물이며, 명농당은 1501년 농암이 44세 때 귀거래의 의지를 표방하여 지은 집으로, 벽 위에 '귀거래도'를 그렸다. 종택과 분강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은 여러 종류인데, 특히 1526년에 그린 '분천현연도'는 농암 당시의 풍광이 잘 나타나 있다. 농암종택에 전해져 오는 보물 가운데는 화산양로연이라는 그림도 있다. 화산양로연의 내력은 이렇다. 1519년 농암은 안동부사로 봉직하였는데, 부(府) 내의 남·녀·귀·천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의 노인들을 청사마당으로 초청하여 성대한 양로연을 베풀었다. 농암은 이 자리에서 고을 원의 신분으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었는데, 이 '색동옷의 희롱'은 중국의 '노래자(老萊子)의 효도'에서 유래한 것이다. 농암의 생애에서 '효(孝)'는 '적선(積善)'과 더불어 일관된 지향점이 되는 것으로, 이는 '효절공(孝節公)'이란 시호가 잘 보여 주고 있다.

종택 사랑마루에는 선조임금이 농암 가문에 내린 '적선(積善)'이란 어필이 걸려 있다. 크기가 무려 1m나 되는데, 농암의 아들 이숙량이 왕자사부의 벼슬을 받아 선조 임금께 나아

가 사은숙배하니 임금이 "너의 집은 적선지가 아니냐" 하며 즉석에서 써서 하사했다.

안동 장씨 경당종택

안동 장씨 종택인 경당종택은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종택은 제월대와 광풍정이 있는 봄파리에 있었으나 약 24년 전 지금의 위치로 옮겨져 중건되었다. 이 집을 지은 경당 장흥효는 학봉 김성일의 문하로 영남학파의 근



11



12



13

간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성리학자이다. 경당은 퇴계의 양대 제자인 김성일과 류성룡, 남명의 제자인 정구 등 3인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했다. 그는 학문을 하는데 결코 나이와 관행을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학식과 덕망이 깊었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평생을 학문과 수행에 정진했다. 그가 학봉과 서애라는 두 거유(巨儒)로부터 직접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이들과 지척 간에 살았고 학봉과 인척관계였던 인연이기도 하다. 예나 지금이나 학봉과 경당종택은 한마을에 있다. 학봉과 경당 집안 간의 인척 관계는 400여 년을 넘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당의 12세손인 장성진씨(69)는 "지금도 집안의 대소사는 학봉 집안과의 의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당 가문의 내력 중 특이한 것은 대대로 전해져오는 음식 맛이다. 경당의 무남독녀였던 안동 장씨 정부인은 한글요리책인 규곤시의방(閩臺是議方)을 편찬하기도 했는데 그 가풍이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다. 경당종택에는 여느 종택이나 고택과

달리 솥대문이 없고 전체적으로 단출하면서도 단아한 기품을 지니고 있다. 건물의 형태는 팔작지붕에 홀처마이고 민도리집으로 전형적인 □자형 평면이다. 건물의 앞면은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이 달려 있는 문간채와 사랑채로 전체 6칸이다. 사랑채에는 경당고택(敬堂古宅)의 편액이 걸려 있는데 지촌 김방걸의 종손인 남정 김구직의 글씨다.

안동시의 고택체험 프로그램

안동시에서는 47개소의 고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고택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 고택에서 숙박을 하며 옛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종택으로는 농암종택, 경당종택, 퇴계종택, 임청각, 오천군자마을, 지례예술훈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고택으로는 하회마을, 수애당, 경덕재 등이다. 고택 숙박체험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매해 30,000여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10 농암 이현보가 타고 자란 농암종택 11 안채 뒷마루에 걸린 꽃감이 가을 정취를 물씬 풍긴다 12 뒷산 숲속에서 내려다 본 경당고택 13 종가집의 장독대

덕노가 함흥에서 꿀을 팔아오다

◆ 16세기 면포의 가격

이 이야기는 오희문이 비상시에 양식 구매를 위해 사두었던 포목 값이 너무 떨어져, 양식을 구하는데 애를 먹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 포화(布貨)는 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결제수단이었는데, 쌀을 비롯한 각종 양곡과 포화 가격은 서로 반비례하여 연동하였다. 즉 쌀이 흔한 추수철에는 포목 값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로 쌀이 귀한 경우에는 포목 값이 낮았다. 오희문이 살던 16세기 후반의 포화 가격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흉년이 들 당시 면포 1필 값에 대한 자료는 여럿 남아 있다. 주로 흉년의 경우 쌀 1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대부분이었고, 다소 상황이 나은 경우에도 3두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년이나 풍년의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자료만이 남아 있는데, 평년이던 종종 25년의 경우 전라도에서 거친 벼 5-6두로 면포 1필을 살 수 있었으며, 풍년이던 종종 20년 함경도에서는 면포 1필이 거친 벼 4-5석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다만 이 거친 벼를 도정할 경우 양이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상시 면포 1필 가격은 대략 쌀 5-6두 수준이라 생각되지만, 흉년 등 양식을 구하기 어려운 때에는 쌀 1두도 구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이야기에서는 교환물이 보리이고, 또 포목이 몇 필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일기분류 : 전쟁일기
 출 전 : 쇠미록(瑣尾錄)
 시 기 : 1599년 11월 26일
 인 물 : 오희문
 장 소 : 강원도 평강군

1599년 11월 26일, 오늘 오희문은 서울에서 평강 집으로 돌아왔다. 보름 정도를 서울에서 머물렀는데, 이번 왕래에는 심한 추위를 만나 고생을 했다. 그러나 일행 모두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행한 일이었다.

집에 와서 들으니 덕노가 지난 보름날 돌아왔다고 한다. 얼마 전 함흥에서 높은 가격으로 꿀을 사들인다는 말을 듣고 오희문은 덕노를 시켜 꿀을 팔아오도록 시켰던 것이다. 마침 지난해 양봉으로 꿀을 좀 모았던 오희문은 꿀을 팔아 가산에 보탬이 될 생각으로 기대가 컸었다. 덕노의 이야기를 들으니 함흥통판인 정효성이

감관을 시켜서 꿀의 양을 쟀 다음 받는데, 6두라고 가져간 꿀이 거기서 재어보니 겨우 5두 3홉이었다고 한다. 값으로 주는 포목은 종들로 하여금 직접 골라서 가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값이 난리 이후로 3필씩 줄어서 꿀 1두에 7필로 쳐준다고 하였다. 듣기에는 1두에 10필씩이라 하였는데, 그 사이 값이 많이 내려간 것이었다. 이리하여 덕노가 가져온 포목은 모두 37필에 불과하였다. 60필의 꿈이 하루아침에 반 토막이 난 것이었다.

거기다가 가져온 포목은 모두 삼승포로 매우 거칠고 나빠서 쓰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게다가 1필도 모두 온전한 것들이 아니고 3, 4곳씩 끊어진 것을 이어놓은 것이었다. 또 척수가 짧아서 본래 35척이어야 할 길이가 30척도 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제대로 된 정목포로 바꾸려면 3필을 주어도 1필 반을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다.

이와 같이 심한 추위에 사람과 말이 왕복하느라 괴로움을 겪었는데, 1년 동안 살아갈 계획이 헛것이 되어 버리니 허탈하기 그지없었다. 차라리 서울의 상인들에게 바꾸었다면 이보다는 후하게 값을 받았을 것이었다. 이것으로 내년에 서울에 가서 생활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 도리어 본전까지 잃어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이 또한 운명인가 싶었다. 이제 와서 한탄하면 무엇 하겠는가! E&C

‘춘곤증’과 ‘불면증’을 건강하게 한방으로 다스리는 법



춘곤증과 불면증은 왜 생기나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뉘며 그 기(氣)의 흐름에 맞춰 생명이 시작되고, 성장하고, 거뒀히고, 저장한다. 우리 인체도 자연의 기에 순응하는 소우주(小宇宙)이기 때문에 추운 겨울 동안 한껏 움츠렸던 몸이 날씨가 풀리면서 봄기운에 적응치 못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춘곤증이다. 춘곤증은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봄 신드롬'이다. 신학기라 열심히 해보겠다고 학교에 갔던 우리 아이도 '잠자는 봄 속의 아이'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또랑또랑하게 할 수 있을까? 낮엔 졸음과 밤에는 불면으로 힘들어 하는 직장인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봄기운은 상승하는 기운이다. 말 그대로 봄을 의미하는 'Spring'처럼 통통 튀어다니는 힘이 넘치는 계절이어야 하며 생명이 돌아나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아직 몸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우리 몸의 상승하는 생명력을 불러 일으켜줘야 한다.

한방에서 '춘곤증(春困症)'은 기허(氣虛)증상으로 본다. 기허란 기운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평소 "나는 밥만 먹으면 졸려"라고 하는 체질이다. 평상시기가 허한 체질의 사람이라면 봄의 자라고 싶은 본능을 채우기에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봄철 식욕부진이나, 성장부진, 춘곤증이 올 수 있으므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보기(補氣)시키는 의미로 보종익기탕(황기 인삼 감초 백출 당귀 진피 승마 시호)이나 생맥산(맥문동 인삼 오미자)을 쓴다. 춘곤증에는 인삼, 당근, 산약죽(참마죽) 등의 약죽도 효과가 있다.

바른 자세와 지압법으로

낮에는 졸고, 밤에는 막상 누우면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오고, 자도 자도 피곤한 경우에

는 눈 주위와 두피, 어깨 근육을 마사지 하면 눈과 목의 피로회복에 좋고 정신적으로 이완되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하는 이에게도 도움을 준다. 얼굴이 푸석해 고민하는 여학생들에게는 얼굴이 탱탱해지는 효과가 있다.

불면을 치료하는 혈자리는 발목 내, 외측(안쪽/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에 있는 조해(照海), 신맥(申脈)을 두드려 준다. 낮에 졸음이 올 때는 뒷머리와 목의 연결부위에 있는 풍지(風池)혈과 어깨의 견정(肩井)혈 눌러주면 정신이 바짝 나는 효과가 있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늘 의자에 앉아 있어 하지에는 늘 체액이 몰려 있으니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거나, 요가자세 중 bridge자세를 취하면 머리 쪽 혈류순환에 좋아 도움이 된다.

올바른 수면습관이 중요해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잠자리에 눕는 것은 잠 잘 때만으로 제한하고, 취침시간에 관계없이 규칙적이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좋다. 또한, 편안한 잠자리에 대한 옛 선조들의 전통으로서, '두량(頭涼), 족난(足煖), 복팔분(腹八分)'이라는 말이 있다. 즉,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 그리고 음식은 20% 부족한 듯 먹는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 좋다는 뜻이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TV시청이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 머리를 너무 많이 쓰는 일을 자제하고 족욕이나 반식욕으로 발을 따뜻하게, 물을 마실 땀 찬 물 보다는 따뜻한 물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불면증에 좋은 한방차

- 산조인차** : 산조인은 햇빛에 말린 산조인을 잘 볶은 다음 산조인 15g을 물 세컵 정도에 넣고 끓이는데, 끓기 시작하면 불의 세기를 약하게 하고 양이 절반으로 줄면 찌꺼기를 없애고 잠자기 전에 한번 씹 마시면 된다. 이때 대추를 10개 정도를 함께 달여 마셔도 좋다.
- 오매차** : 오매, 즉 불에 그을려 말린 매실을 말하는데 물 세컵에 오매를 5알 넣고 물이 반이될 때까지 끓여서 마시면 된다.
- 영지차** : 영지에는 쓴맛이 있으므로, 심신(心神)의 안정을 주는 대추를 같이 사용하면 좋다. 물 500ml에 영지 30g, 대추 20개를 넣고 푹 끓여서 마신다.
- 대나무잎차 (댓잎차, 죽엽차)** : 대나무 잎 20g정도를 물 500cc에 넣고 달여서 녹차처럼 마시면 좋다. 죽엽 자체가 성질이 차가워 심장의 화기를 내려준다.

여기서 수면을 도와주는 식품이나 차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운을 돋우어 주는 차가 어떤 이에게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더 안 오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방차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체질과 증상에 적합한 한지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낫다. 특히 특정한 질병을 갖고 있다면 이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불면증의 종류

- 입면장애** : 졸처럼 잠에 들기 어려운 경우
- 숙면장애** :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수시로 깨는 경우
- 조기각성** : 잠은 금방드는데,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이후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지 않는 경우 **ERC**

인공지능과 로봇, 인간의 외로움을 해소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만큼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타인에게 의지하는 존재라는 말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며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얻는다. 그렇기에 여러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독감을 심하게 느끼며 소속된 집단이 없는 사람일 경우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고 특히나 사망률도 높게 나타난다.

AI 스피커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해결해야 할 실질적인 문제이다. 세계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이행해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는 1인 가구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근 아주 재미있는 실험 결과 하나가 발표됐다. 그것은 바로 독거노인이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비율이 그 아래 나이의 사람보다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이다. AI 스피커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SK텔레콤은 독거노인 1150명을 대상으로 AI 스피커의 사용 패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독거노인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일상적 대화를 AI 스피커와 나누는 비중(13.5%)은 그렇지 않은 실험 집단(4.1%)보다 3배가량 많았다. 독거노인은 AI 스피커에 "심심해" "너는 기분이 어때니?" 등의 말을 거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 이렇게 감성적인 대화의 비중이 높은 것은 독거노인이 AI 스피커를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AI스피커가 외로움을 달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AI 스피커는 처음 등장할 때 단지 음성으로 음악을 틀고 정보를 검색하고, 가정 내 스마트기기를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홍보되지 않았다. 미국의 컴퓨터 회사 애플은 AI 스피커 흥판을 광고할 때 사람들의 외로움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 광고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이 일에 지친 모습으로 집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때 주인의 기분을 알아챈 AI 스피커가 흥겨운 노래를 틀어주고 여성은 춤을 추기 시작한다. 애플은 AI 스피커가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사진 1. 독거노인은 AI 스피커와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의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출처: shutterstock)



사진 2. 미래에는 소셜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출처: shutterstock)

우리의 친구가 될 소셜로봇

스파이크 존즈의 영화 <그녀>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의 이야기다. 영화의 주인공 시어도어는 인공지능인 사만다와 많은 얘기를 나눈다. 원래 결혼을 했지만 부인과 별거하고 있는 시어도어는 자신의 공허한 감정과 외로움을 사만다가 채워주고 있음을 느낀다.

많은 관객이 이 영화에 공감한 것은 우리가 우리와 내면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대라면 그게 실제 인간인지 아니면 컴퓨터에 불과한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아니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게 비닐로 된 공이라도 상관없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다.

이에 대학과 기업에서는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로봇, 특히 실제로 이 로봇이 분노, 기쁨, 슬픔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들을 모사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른바 '소셜로봇'이라 부르는 이런 일련의 연구 프로젝트는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까지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창기 소셜로봇은 소니사가 만든 강아지 로봇 '아이보'다. 아이보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추천으로 구매할 사람을 정해야 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강아지의 충성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아이보 때문에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해지자 장례식을 치러줄 정도였다.

최근에는 미국의 MIT랩에서 몸통과 머리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정을 드러내는 소셜로봇 '지보'를 개발 중이다. 지보는 일정을 관리하는 개인비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음성명령을 이해하고 명령 내린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

물론 소셜로봇이 인간의 친구로서 완전히 기능하려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 소셜로봇은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이 충분히 인간을 대체할 정도로 똑똑해야 한다. 그러려면 빅데이터 확보가 매우 중요하데,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의 건강은 사회의 건강과 연결돼 있다. 미래의 우리 사회가 외로움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외로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외로움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E&C

Culture

Festival

2019 서울 빛초롱축제

기간 : 11월 1일 ~ 17일 장소 : 청계천(청계광장~수표교)



‘당신의 서울이 11월 밤하늘 아래 등과 빛으로 쓰여진 한편의 동화가 됩니다.’

매년 11월, 매해 다른 콘셉트로 청계광장 및 청계천 일대의 오색찬란한 형형색색의 램프를 밝히는 2009년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시작된 이래 매년 2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 서울의 겨울 대표 문화관광 축제이다. 수만개의 등불과 세계명작동화를 품은 서울빛초롱축제가 꿈을 잃지 않은 당신을 초대한다.

www.seoullantern.com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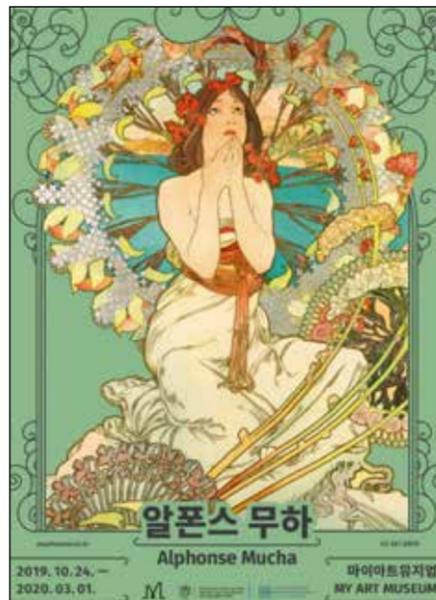
알폰스 무하 ALPHONSE MUCHA

기간 : ~ 2020년 3월 1일 장소 : 마이아트뮤지엄

“나는 닫혀있는 응접실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예술활동을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알폰스 무하는 1860년 슬라브 모라비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생하여 독일 뮌헨과 비엔나 등에서 아카데미 유학을 하고 파리로 건너가 연극 및 광고포스터와 같은 성공적인 상업미술 활동을 하였다. 이후 조국으로 돌아와 1차 세계대전을 포함 20여 년에 걸쳐 체코의 역사와 민족애를 담은 <슬라브 서사시>연작을 제작했다. 나치의 신념에 반하는 작품활동 때문에 체포된 후 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세기말 한 시대의 양식을 선도하고 뜨거운 애국심을 가졌던 거장의 장례식에는 1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을 만큼 무하는 체코를 대표하는 화가이다. 그의 판화, 유화, 드로잉 등 오리지널 230여 점을 작가의 삶의 여정에 따른 작품 변화에 따라 소개되며 한국에서 처음으로 그의 작품들을 만날수 있는 기회이다.

www.myartmuseum.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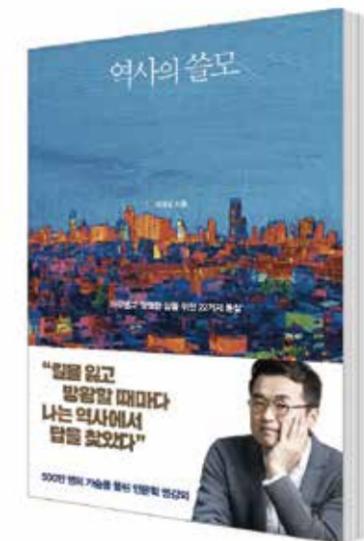
Book

역사의 쓸모 자유롭게 멋진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

수백 년 전 이야기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역사 사용법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 최태성을 찾은 사람은 비단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만이 아니었다. 교양을 쌓으려는 일반인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구하는 CEO부터,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청년과 중년까지 일과 삶의 문제로 갈등하는 모든 이가 그를 찾았다. 단편적인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본질을 파고드는 그의 강의를 듣는 이로 하여금 역사에 빚대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는 저자는 삶이라는 문제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설서는 역사라고 말한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설에서 도움을 얻듯,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인물들의 선택과 그 결과가 담긴 역사에서 인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넘나들며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를 뽑아내고, 자신만의 궤적을 만들며 삶을 살아간 이들을 멘토로 소환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쓸모』는 수백 년 전 이야기로 오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역사 사용 설명서다.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역사의 쓸모』를 통해 역사를 삶의 안내서로 삼는다면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역사 앞에서 멋진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최태성 저 | 다산초당



Movie

더 컨덕터

뉴욕 필하모닉이 96년간 기다려온 최초의 마에스트라!

10그램의 지휘봉으로 세상의 편견을 뒤흔든 그녀의 인생을 담은 음악!

1927년 뉴욕, 최고의 지휘자가 꿈인 '윌리 월터스'(크리스탄 드 브루인)는

자신의 꿈을 폄하하고 만류하는 가족과 주변인들을 뒤로 한 채

음악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수소문 끝에 피아노 수업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입양아이며 본명이 '안토니아 브리코'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심지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스승에게 파문 당하면서 커다란 벽에 부딪치게 되는데...

개봉예정



KEPCO E&C News



● 2019년도 제8차 이사회 개최

지난 9월 26일,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 및 감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8차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등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 및 접수되었다.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와 MOU 체결

- 개도국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공급 효율화 사업 추진 공동 노력 -

회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와 7월 31일 성남시 KOICA 본사에서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신북방 정책 및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의 상생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해외 신재생에너지 및 노후 발전소 현대화 분야에서 3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과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이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회사는 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노후 발전소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에 대한 전문성, KOICA는 다양한 무상원조사업을 통한 한-개도국 간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하며 쌓은 신뢰와 사업 경험 및 노하우, KIND는 해외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3개 기관은 향후 공동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게 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의 사업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1. 한전기술 : 기술 총괄, 지분참여, SPC 운영, EPC 주관 등
2. 코이카 : 무상원조(Grant), 지분참여 등
3. KIND : 금융조달, 타당성조사 지원, 지분참여 등

회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개발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불한인과학기술협회와 MOU 체결

회사는 9월 23일 재불한인과학기술협회와 프랑스에서 채용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서명식에는 진태은 원자력본부장과 재불한인과학기술협회 이종욱 부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국제핵융합로(ITER) 건설관리사업(CMA: Construction Management as Agent) 등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활발한 기술교류와 원활한 현장 기술인력 수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은 “에너지전환시대에 새로운 미래 에너지로 ITER 사업에 대한 장기 플랜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협력관계 도출을 위하여 실무선에서 정기적인 교류와 ITER 건설관리사업 현황을 공유할 것”을 당부하였다. 회사는 이번 MOU 체결로 ITER 건



설관리사업 수행에서 현장 매출확대가 기대되며, ITER 사업을 Barakah원전 LTEA(Long Term Engineering Agreement)사업, 국내 O&M사업, Digitalization 사업, Back-end 사업 등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선도할 주요 사업으로 더욱 육성할 계획이다.

● 2019년도 안전경영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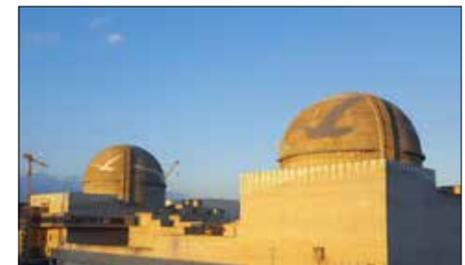
회사는 8월 21일 2019년도 안전경영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안전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 과정에 대한 대내·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안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촉식에는 엄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김천의료원장과 전소방방재청 차장 등을 포함한 전문가 위원 4명, 노동조합과 협력업체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4명, 회사 위원 4명 등 총 1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이번에 위촉된 2019년도 안전경영위원들은 위촉일로부터 1년 동안 회사 안전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및 회사 안전경영 추진방안에 대한 제언 등 회사의 대내·외 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는 회사의 2019년도 안전기본계획에 대한 보고 및 설명과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협의가 있었다. 회사는 안전경영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회사 안전경영 추진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 신고리원자력 4호기 상업운전 개시

신고리원자력 4호기가 8월 29일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신고리 3,4호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1400MWe급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최초 원전으로 UAE 수출원전의 참모발전소이다. 기존 OPR1000 대비 발전용량이 약 40% 증가된 1,400MWe급이며 기존 40년 설계수명에서 60년의 설계수명을 적용했다. 또한 내진 성능에 있어서 기존 리히터 규모 6.5보다 향상된 규모 7.0 지진에도 구조물 및 기기의 기능을 유지하고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신고리 3,4호기는 2001년 2월에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 8월 설계 및 주요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2007년 9월 부지정지공사를 착수하였고 2008년 4월 건설허가를 취득하여 본관 기초를 굴착하였다. 이후 신고리 4호기는 2009년 10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착수하였고 2016년 4월 고온기능시험을 완료하고 2019년 2월 운영허가를 취득하였으며 연료장전과 시운전을 거쳐 2019년 8월 29일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신고리 3,4호기의 성공적 준공과 미국 NRC의 DC 취득을 통해 APR1400 노형의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국내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공학계통 교육

회사는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공학계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에너지전환시대



KEPCO E&C News



에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자력본부와 원자로설계개발단 직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국가핵융합연구소(NFR) 이현곤 부소장을 비롯한 핵융합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ITER 토카막 공학 계통 및 부대 장치, ITER 공학해석, 플랜트 계통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회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ITER 공학 계통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함께 향후 ITER 사업 참여를 위한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원자력본부 신규 보임자 워크숍 실시

원자력본부는 2019년 3월 인사에서 신규 보임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및 안전문화 정착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개발 확대와 원전 안전성 강화에 대한 신규보임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는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하여 신규보임자와 소속부서장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워크숍은 원자력본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인사제도, 보안 및 청렴교육, 원자력안전문화(공정문화) 특강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원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인식수준 함양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본지식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진태은 원자력본부장은 신규 보임자들에게 “직위자로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 자세를 견지하여 회사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원자력 안전성 증진과 선진 기술문화 전파에 앞장서자”고 말했으며,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적극 준수하고 청렴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직위자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 협력업체 대상 상생협력대출 프로그램 도입

- 공기업 최초 도입,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 통한 동반성장 구현 -

회사는 신한은행, SGI서울보증과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협력대출' 프로그램을 7월 22일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생협력대출 프로그램은 공기업 최초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 금융지원 상품이며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들은 기존 대출 한도와 별개로 추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추천을 받은 협력업체는 SGI서울보증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협력업체들의 자금 유동성이 확보돼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는 앞으로도 협력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 핵심 역량강화 핵융합 여름강좌 실시

회사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대전 원자로설계개발단에서 핵심 역량강화 핵융합 여름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지난 7월에 실시된 ITER 공학 계통 교육에 이어 에너지전환시대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자력본부와 원자로설계개발단 직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강좌는 서울대학교 나용수 교수, KAIST 김영철 교수, KAERI 이동원 박사 등 국내 핵융합전문가를 초청하여 핵융합에너지 생성원리와 핵융합로 기초이론을 주제로 플라즈마 및 자장 가동 원리, 플라즈마 가열, 토카막, KSTAR 및 ITER, 핵융합발전원리 및 이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회사는 앞으로도 핵융합 관련기술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ITER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핵융합실증로 개발 등 핵융합분야 사업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흥택 작가 특강 개최

회사는 8월 21일 1층 대강당에서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 저자 임흥택 작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2019~2020 독서경영교육 저자 특강'으로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를 통한 조직 내 세대갈등 해결방안을 다 같이 고민해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강 일정이 확정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90년생이 온다』 책을 선물해 더욱 화제가 되었으며, 경영진을 비롯한 직원들이 1층 대강당을 가득 메우며 두 시간에 걸친 강연을 경청했다. 임흥택 작가는 강연에서 세대 간의 포용력 있는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강조하였으며, 강연이 끝난 후에는 직원들이 가지고 온 책에 일일이 직접 서명해 주는 작가 사인회 시간도 가졌다.

●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회사는 9월 11일 본사 1층 로비에서 혁신도시 어울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였다. 김천시와 협업하여 진행된 이날 행사는 추석을 맞이하여 임직원에게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고, 지역 농가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장터에는 김천시 12개 읍면동에서 19농가가 참여하여 사인머스켓, 호두, 고추장,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판매하였다. 임호섭 경영관리본부장은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직거래 장터를 통해 김천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지역농가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김천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상생 발전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정당한 제보란?

| 익명제보의 악용사례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윤리경영 Key-point

신고인의 신분보장

1.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부서장,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감사실장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소속부서장, 행동강령책임자, 감사실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익명제보 악용사례



익명신고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내부신고는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시하는 실명 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접수해야 할 것입니다.

Inside Outside

동호회 동정

제35회 대덕연구단지 테니스 대회 우승



원자로설계개발단 테니스회는 9월 28일 대덕 단지에서 개최된 제35회 대덕연구개발특구 테니스연합대회 2부에서 우승하여 회사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 대회는 1989년부터 개최되어 31년의 역사를 가진 대회로서 대덕연구단지 내 22개 기관 41개 팀 280여 명이 참석한 유서 깊은 대회이며 이번 우승은 2009년 2부 우승 이후 10년 만의 쾌거이다. 19개 팀이 참석한 2부 경기에서 원설단 테니스회 청팀은 예선전 4경기, 본선 3경기의 불꽃 튀는 치열한 접전 중에 한 번도 지지 않고 결승에 올라 전자통신연구원(청)팀을 누르고 7전 전승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신환 원설단장은 테니스회원들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번 우승은 건강한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직원들 서로가 소통하고 잘 협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원설단 테니스회는 현재 50여 명이 건강과 팀워크를 다지며 열심히 활동 중이다.

야구회(코팩파워스) 제21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배 야구대회 8강 진출



우리 회사 야구회(코팩파워스)가 제2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배 야구대회에서 8강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배 야구대회는 1992년 11개 기관의 참가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간 유대강화 및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제21회 야구대회는 9월 28(토)~29(일) 공주시 및 세종시에 위치한 야구장에서 개최되었으며, 16개 팀이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코팩파워스는 16강에서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를 상대하여 선발전원 득점을 기록하는 등 타선폭발 및 안정적인 투수운영으로 24대 1의 대승을 거두었다. 20분간의 휴식 후 펼쳐진 8강전에서 실업야구 선수출신을 보유한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만난 코팩파워스는, 팽팽한 경기를 펼쳤으나 아쉽게 4대 5로 패하고 8강에서 금번 대회를 마감하였다. 한편 코팩파워스를 꺾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결승까지 진출해 한국중부발전전을 꺾고 우승을 차지해 8강전 패배의 아쉬움이 큰 대회였다. 하지만 지난해에 비해 한층 강화된 전력을 보여준 대회였다.

사우 애경사



결혼

- ▶ 원자력)토건환경기술실 나창환 과장 : 10월 6일 대구 M스타하우스
- ▶ 원자력)원자력기술실 김의로 사원 : 10월 9일 베뉴지
- ▶ 원자력)PSA&PSR사업그룹 김준용 사원 : 10월 19일 김천 파크호텔
- ▶ 원자로)원자로사업관리실 한홍록 부장 자녀 : 10월 19일 대전 롯데시티호텔
- ▶ 신사업)건설사업그룹 김재철 부장 자녀 : 10월 19일 이스턴베니비스
- ▶ 원자력)사업관리기술실 손영신 대리 : 10월 19일 대구 노비아갈라
- ▶ 원자력)토건환경기술실 강기빈 사원 : 10월 19일 김천 파크호텔
-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김승현 대리 : 10월 19일 강릉 씨마크호텔
-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변창호 대리 : 10월 20일 대전 라도무스아트센터

부음

- ▶ 신사업)건설사업그룹 이현수 부장 모친상 : 9월 10일 삼성서울병원
- ▶ 원자력)원전O&M사업그룹 김태웅 부장 장인상 : 9월 12일 원자력병원
- ▶ 계약관리실 민형식 부장 장인상 : 9월 14일 대전 을지대병원
- ▶ 인사노무처 한석진 부장 장모상 : 9월 21일 안동의료원
- ▶ 신사업)기계배관환경기술실 송승범 대리 장인상 : 9월 27일 대전 유성선병원

알립니다

봉사단, 동호회 부서행사 등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시면 홍보팀으로 연락주세요. 동우회는 퇴직직원들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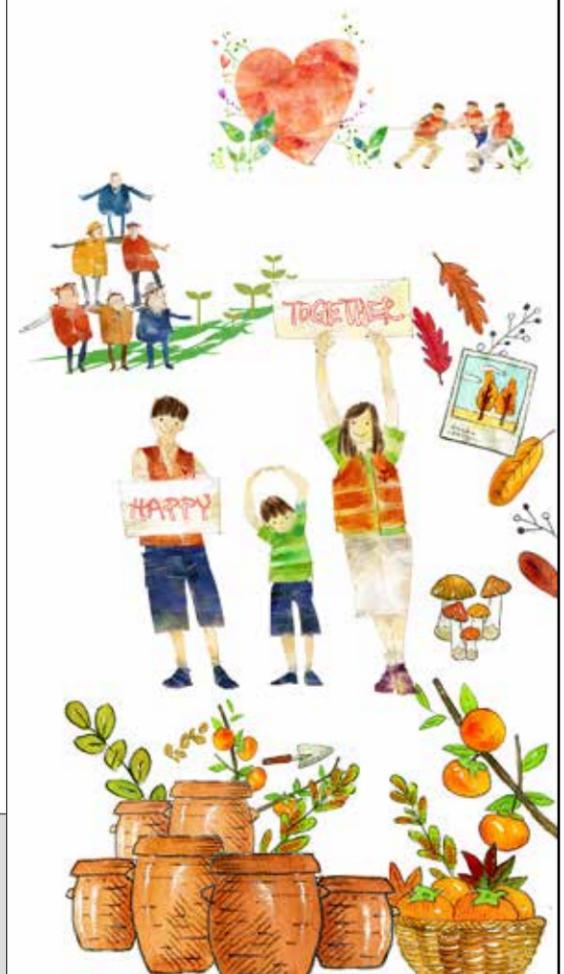
동우회 동정

결혼

- 안병문 회원 자녀 : 9월 28일 아펠가모
- 김재호 회원 자녀 : 10월 9일 서울웨딩타워
- 김재철 회원 자녀 : 10월 19일 이스턴베니비스
- 이원식 이사 자녀 : 11월 2일 아모리스

부음

- 남천우 회원 본인상 : 9월 2일 일산병원
- 조미정 회원 시모상 : 9월 11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 이훈민 자문위원 장모상 : 9월 19일 온고을장례식장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 검출



어린이가 즐겨 사용하는 비눗방울 장난감은 놀이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되거나 입·코를 통해 흡입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위생 관리 및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제품에서 CMIT, MIT 및 기준 초과 미생물 검출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3개 중 3개(13.0%)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CMIT가 최소 1.26mg/kg에서 최대 13.93mg/kg, MIT는 최소 0.65mg/kg에서 최대 3.23m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또한, 3개(13.0%)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ml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ml ~ 최대 330,000CFU/ml) 초과했고, 효모 및 사상균이 동 기준(100CFU/ml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ml ~ 최대 320,000CFU/ml) 초과하여 검출됐다.



【 유해 보존제 및 미생물 검출제품 시험결과 】

제품명	수입사	제조국	보존제(mg/kg)		미생물*(CFU/ml)		비고
			CMIT (사용금지)	MIT (사용금지)	총호기성미생물수 (1,000이하)	효모 및 사상균 (100이하)	
도라에몽버블건	(주)SJ	중국	1.26	0.65	41,000	49,000	
스틱비눗방울	유아이티상사	중국	5.45	1.99	불검출	불검출	
스틱왕비눗방울	재미존	중국	13.93	3.23	불검출	불검출	2019.4 이전 제조 제품에 한함.
메롱망치버블	(주)세주	중국	불검출	불검출	4,800	5,600	
방울짱 리필액	방울랜드	한국	불검출	불검출	330,000	320,000	2019.7 이전 제조 제품에 한함.

* CFU : Colony Forming Unit

- MIT(Methylisothiazolinone) :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총호기성미생물, 효모 및 사상균 : 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 및 곰팡이균 등을 말하며,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제품을 접촉할 경우 피부 염증을, 섭취할 경우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음.

7개 제품이 사용연령 표시 누락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30.4%)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1개(4.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 보존제 및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인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비눗방울액을 직접 만지거나 마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놀이 후에는 가급적 빨리 손과 몸을 씻길 것을 당부했다. 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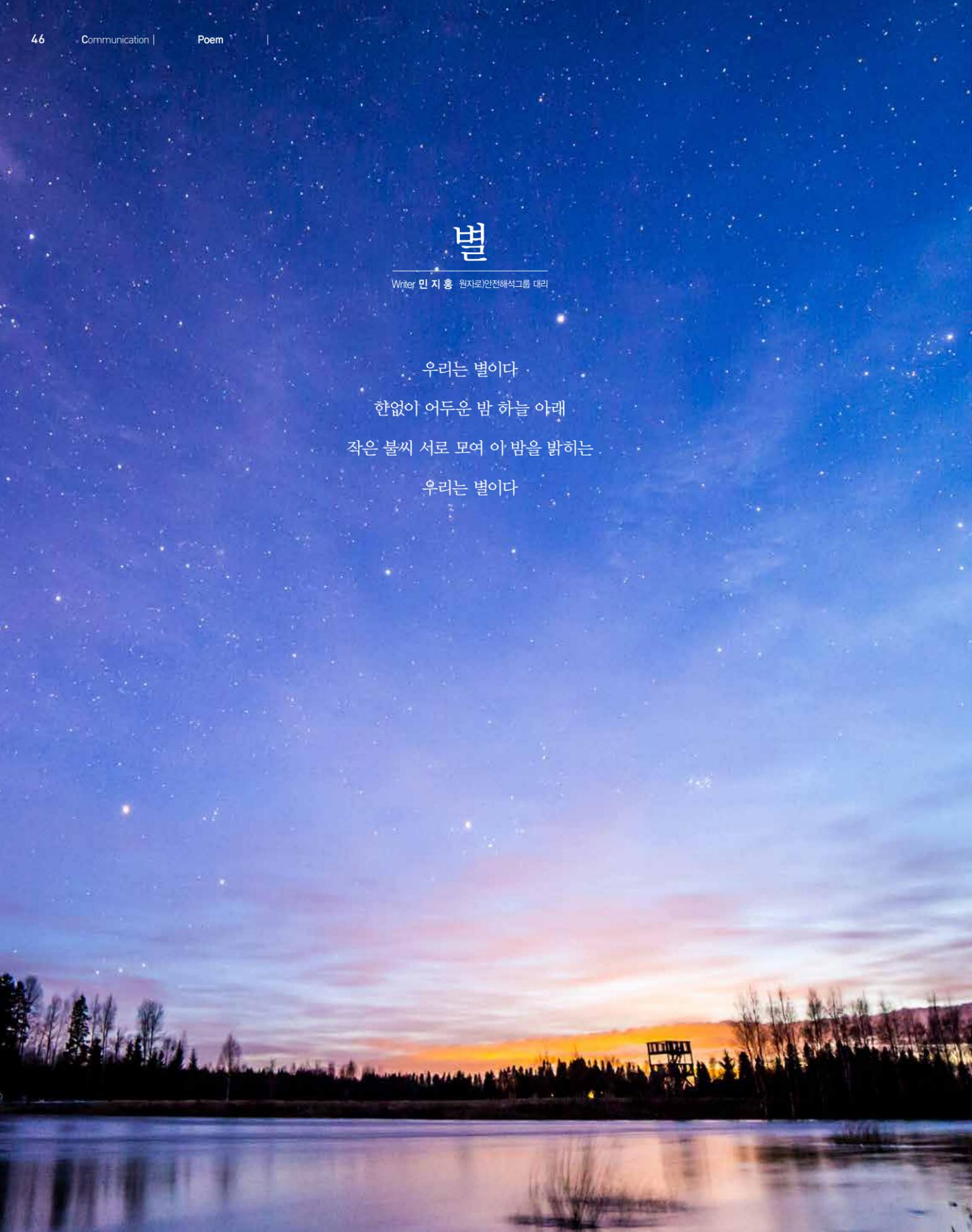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별

Writer 민지홍 원자로안전해석그룹 대리

우리는 별이다
 한없이 어두운 밤 하늘 아래
 작은 불씨 서로 모여 아 밤을 밝히는
 우리는 별이다



그런 가을입니다

구절초 꽃잎에 내려 앉은 햇빛 한줌 ... 소담소담
 강아지풀 하늘거리는 바람 한움큼 ... 살랑살랑
 쑥부쟁이 꽃잎에 송글 맺힌 이슬방울 ... 찰랑찰랑
 산국 향 그윽한 고개 넘어 매실밭 길엔 ... 쿵쿵실룩
 역새 은빛 일렁이는 둔덕 한켠으로 ... 반짝반짝
 메타세콰이어 길속에 숨은 햇별 꽃다발 ... 두근두근
 마지막 생동을 축하하고 갈무리하는 ... 가을가을
 그런 가을입니다

글 · 사진 | 김영규 품질안전처 부장

